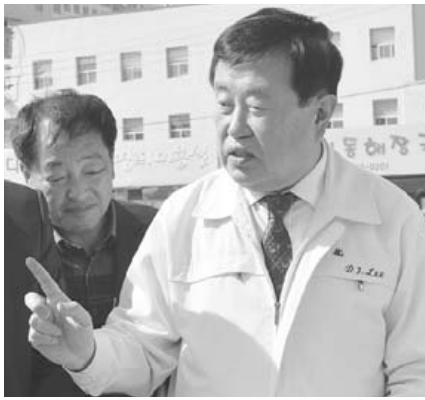


진도군, 서남해 대표 도시 발돋움 기반 구축



민선 7기 진도군이 투자 유치와 SOC 확충 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거두면서 서남해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민선 7기 전반기 성과 분석

민선 7기 진도군은 지난 2년 동안 투자 유치와 SOC 확충 등 진도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관광·농수산업, 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한 성과를 내면서 명실상부한 서남해 대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동진 진도군수는 “지난 2년은 지속 발전 가능한 진도의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해 군정 역량을 집중하는 시간이었다면 남은 2년은 진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변곡점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군은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진도대교 발열 체크장을 신속히 구축, 방문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대처로 ‘청정 진도’를 사수하며 호평을 받았다. 효과적인 코로나 대처는 청정 진도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고 관광산업과 투자유치 분야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 공익 수당 60만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 군비 67억원을 포함한 총 207억원의 민생지원 사업을 펼쳐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극

복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지난해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200여명의 신규 인력 채용과 관광객 증가 효과를 거두면서 지역 경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았다.

군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주요 성과로 ▲진도항 개발 ▲어촌 뉴딜 사업 ▲진도휴게소 건립 ▲LH 임대주택 공급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추진 등을 뽑았다.

또 지난해 대비 262억원 늘어난 국·도비 예산 1천525억원을 확보해 민선 7기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대규모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된 것

도 눈길을 끈다.

334억원 규모의 배수개선 사업과 248억원 규모의 어촌뉴딜 300 사업 등 대규모 지역 현안 개선 사업에 선정돼 지역 발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은 지속 발전을 위해 ▲투자 산업 경쟁력 제고 통한 경제 활성화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역 발전 견인 SOC 확충 ▲패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환경 건설 ▲친환경 농어업 기반 구축 ▲군민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등을 민선 7기 후반기 역점 추진 시책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관광단지 2단계 사업 추진, 진도항 국제

항 조성, 국도 18호선 확장, 해안일주도로 완공, 어업 활성화를 위한 어구·어망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민선 7기 공약인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과 연계한 전 마을 CCTV 설치 ▲전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보수 ▲섬 마을 정주환경 정비 ▲재래식 부락 화장실 개량 등을 민선 7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그동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원과 관심을 보내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진도를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도=배세권기자

구례군, 봉성산 둘레길 개장

구례군은 2일 “구례읍 봉성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봉성산 둘레길’ 조성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2월 설계에 착수해 3월 공사에 착공, 조성을 완료했다.

군은 기존 등산로가 정상까지 일직선 이어서 고령층에게 부담이 클 것이라고 판단, 고령층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게 조성했다.

봉성산 둘레길은 전체 길이 2.8km로 구례현충공원에서 봉서체육공원까지 이어진다. 한 바퀴 순환하는데 1시간이 소요된다.

데크로드를 비롯한 인공물 설치를 최대한 줄이고 흙길과 야자매트로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뱃나무숲, 소나무숲, 대나무숲, 야생복차발 등이 어우러져 있다.

봉성산은 구례읍에 위치한 해발 166m의 산으로 구례읍 주거지역에 밀접해 있으며 지리산을 조망할 수 있어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구례=이성구 기자



진도대교 발열체크장 운영 재개

진도군이 최근 코로나19 지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진도대교 발열체크장 운영을 재개했다. 발열체크장은진도대교에하루 4명, 3교대로 증일 운영하며진입차량 탑승자 전원에게 대해발열체크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완도 보길도 예송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인증 박차

郡, 유관기관 합동 점검…신지명사십리 이어 2호 획득 기대

완도군이 보길도 예송해수욕장에 2021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신청서 작성에 앞서 국제환경교육재단 한국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보길도 예송해수욕장을 찾아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보길도 예송해수욕장은 오래 해변이 아닌 청명석이라 불리는 갯돌로 이뤄진 길이 2km, 폭 50m의 해변이다. 갯돌은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갈 때면 황홀한 해조음을 만들어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해

‘백색 사운드의 향연장’으로도 불린다.

해변을 둘러싼 수령 200~300년 된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40호)과도 절묘한 조화를 이뤄 경관이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섬 곳곳에는 세연정 등 고산 윤선도 유적지와 동백 군락지,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5.2km의 어부사시사길과 보육리 공룡알 해변 등 산림과 해양 치유, 관광자원의 보고(寶庫)다.

‘블루플래그’ 인증이란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환경교육재단(FEE)이

안전, 환경교육, 수질, 주변 환경 등 4개 분야, 29개 평가 항목과 137개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해수욕장에 부여하며 국내에서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유일하게 2019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예송해수욕장이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5회의 수질 검사와 개장 전후 각 한 차례 씩 총 7회의 수질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내년까지 모두 137개 평가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예송해수욕장을 찾은 강대영 국제환경교육재단 한국사무소 이사는 “예송해

수욕장은 천연기념물(40호)인 상록수림을 배경으로 갯돌로 이뤄진 특색 있고 빼어난 자연 경관과 육안으로도 청정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해변의 수질 상태, 주변의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은 블루플래그 인증 평가에 있어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블루플래그 국내 1호인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이어 예송해수욕장이 제2호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2021년 완도방문의 해 성공 추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청정 완도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직원과 소통…현장에서 답 찾을 것”

임재영 순천부시장 취임

임재영(사진) 제17대 순천부시장이 지난 1일 취임했다.

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생략했으며 시 현안 업무 파악을 위해 잡월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 현장 등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1996년 지방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



작한 임 부시장은 보성부군수, 전남도 경제과학국장, 자치행정국장, 도민안전실장 등을 역임했다. 임재영 부시장은 “허석 순천시장을 도와 순천시 2천여 공직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순천=남정민기자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 만들기 최선”

김종갑 화순부군수 취임

김종갑(사진) 제30대 화순부군수가 지난 1일 취임해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구충곤 군수를 비롯한 군 실·과·소장 20여명이 참석했다.

화순 출신인 김 부군수는 1985년 9급 공채로 임용돼 화순군 사평면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1990년 전남도로 전입해 신성장산업과장 등을 역임했다.



김 부군수는 “30여년 만에 고향 화순에 돌아와 설렘과 동시에 부군수라는 직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군정을 펼치고 있는 구충곤 군수를 도와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기자

“해남 위상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

강상구 해남부군수 취임

강상구(사진) 해남부군수가 지난 1일 취임했다.

취임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략했으며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담양 출신인 강 부군수는 1988년 임용돼 공직에 입문한 후 전남도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을 거쳐 정부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으며 전남도



기획조정실 국고 담당, 국비예산팀장,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강상구 부군수는 “민선 7기 해남군정의 성공을 위해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어업과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해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지역발전 위한 아이디어 최대한 결집”

고동석 함평부군수 취임

고동석(사진) 제28대 함평부군수가 지난 1일 취임했다.

장흥 출신인 고 부군수는 광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9급 공채로 임용돼 예천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4년 전남도로 전입해 투·융자 심사담당, 회계감사담당, 의회사무처 특별수전전문위원,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고 부군수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우수



한 지리적 여건을 지닌 함평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라며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상익 군수의 군정 철학과 잘 버무려진다면 함평의 새로운 도약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료 공직자는 물론 군민과 격의 없이 소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최대한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함평=신재현기자

“감동 소방서비스로 시민 안전 도모”

남정열 목포소방서장 취임

남정열(사진) 제43대 목포소방서장이 지난 1일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남 서장은 1984년 소방공무원 특채로 임용돼 광양소방서 방호과장, 보성소방서 방호과장, 나주소방서 구조구급과장, 전남소방본부 상황실장, 경호처 기획단 과장,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광양소방서장, 순천소방서장, 고흥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남 서장은 소방업무 처리에 있어 오랜 실무 경험을 바



탕으로 부드러운 리더십과 탁월한 업무 추진 능력을 인정받아 소방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정열 목포소방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의 원동력은 안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소한 민원사항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작은 소리까지 귀 기울여 감동 소방서비스를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강홍준기자

광양 철강산업 기술개발 속도市, 2개 분야 19개 과제 추진

광양시는 2일 “차세대 신소재산업 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강산업 제도와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달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철강산업 제도와 기술개발 사업’은 광양시의 경북 포항시, 충남 당진시가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천355억원(국비 924억원, 지방비 103억원, 민자 328억원)을 투자해 철강소재 고부가가치화와 친환경 자원순환 2개 분야 19개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한다.

산자부는 내년부터 광양 익신산단에 고망간강 상용화를 위한 장비 구축비 60억원을 들여 고망간강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등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고망간강은 국내 철강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만 생산하고 있으며 시는 금속가공 열처리센터와 연계해 고망간강 제품 상용화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과 제품 생산을 위해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R&D사업에 240억원을 투입해 지역 대기업에서 생산 중이나 중소기업사의 낮은 기술력으로 활용이 어려운 다품종 맞춤형 철강소재 및 응용기술,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 분야, 고망간강, 내부식강 등 소재의 가공 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한다. /광양=허선식기자

목포시, 대반동 앞바다 ‘스카이워크’ 개방

길이 54m·높이 12~15m 전망대…사진 명소 기대

목포시는 2일 “총 사업비 14억원(국비 7억원, 시비 7억원)을 투입한 대반동 유담유원지 앞바다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 사업이 마무리돼 전달 개방했다”고 밝혔다.

스카이워크는 길이 54m, 높이 15m로 바다의 2/3 이상이 안전한 투망 강화유리 및 스틸 발판으로 제작됐다.

또 상공 15m에서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한 스릴을 제공하면서도 입장객 안

전을 위해 난간 높이는 1.4m로 기존 높이보다 20cm 높게 설계했다.

시는 스카이워크가 정상 운영되면 대반동 일대가 새로운 목포 관광 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카이워크는 하절기(3~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야간 출입은 통제된다. /목포=정해선기자

보성차 브랜드 세계화 성과 ‘눈에 띄네’

郡, 농림부 경진대회 우수상…‘오션브리즈’ 아마존 입점

보성차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보성군은 2일 “최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1회 농식품 수출 우수 지방자치단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자발적 수출 확대 동기를 높이고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서면 심사로 본선 진출 10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본선 발표심사로 진행됐다.

이번 수상으로 군은 각종 농·특산물 수출사업 우선 선정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군은 지난 4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새롭게 개발한 보성차 브

랜드 오션브리즈(Ocean Breeze)를 론칭하고 출시 2개월 간 마차(가루녹차) 부분과 브랜드차 부분에서 신제품 1위를 차지했다.

군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2018년부터 아마존 입점을 기획했으며 지난해 6월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한 시장개척단이 미국 LA를 방문, 보성 차(茶) 수출을 위한 아마존 밴드 업체 Kreassive LLC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 전통차 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도 행정력을 집중, 보성차 세계화와 농가 소득 향상,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임병연기자

신안 홍도 ‘섬 원추리 축제’ 취소

신안군은 2일 “오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홍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섬 원추리 축제’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

군은 홍도 원추리 꽃을 주제로 지난해 축제를 열었으며 올해도 ‘제2회 섬 원추리 축제’를 위해 해변 경관 채색 및 환경 정비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박람회 추진위원회를 열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최성진 축제추진위원장은 “정부의 생활방역 기조에 동참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우량 군수는 “아쉬움은 있지만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결정한 일인 만큼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안=양훈기자